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납은 사후선(伺候船)

어찌 바다만이 광란이었겠는가. 그 태풍은 바다보다 차라리 하늘 전체를 광란의 극한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자연의 폭력에 대해서 인간이란 한갓 하등동물의 그것과 다를 바 아니었다. 이러한 중에 다행히 태풍은 일정한 장소에 집착이 없었는지 그러저러 지나가는 것이어서 무욕도의 다음날은 속속의 나무가 부러지는 등 사후선엔 혼적 밖에는 여는 때의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름다운 합두행자가 아직도 남정네들의 기운에 내외를 하는 처지에서 될수 있는 한 억지로 데려온 다른 나라의 신(神)처럼 함부로 밖에 나오지 않았다가 태풍 뒤에는 선향 앞의 흙바닥 끝에 이어지는 너럭바위까지 나와 있었다.

그 모습은 이 황량한 진회색과 검은 빛의 바위로 이루어진 섬 풍경의 덜화가 풀린 것 같은 파도에 예외적인 하나의 요염하기까지 한 순결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아니 그것은 실제이기보다 추상인 지도 못했다.

만화가 구조원 두 사람 중의 하나를 먼저 살려냈다. "푸우!" 하고 꼭 막혀있던 곤충의 기공(氣孔)이라도 찾아낸 것 같은 큰 숨이 나왔고 이어서 크게 감겨

"그들의 뜻을 알 때까지는... 여기서 돌보아야 하겠지"라고 혼잣말처럼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합두와 함께 있던 우녀가 두 사람이 제 정신이 들어있으나 아직 일어설 힘이 없는데도 암자 마당의 돌탑에 기대어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어느 포구에서 오신 분이오?"라고 힘차게 묻는 것이었다. 태풍으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태풍 속에서도 끄떡 없는 하나의 독립된 힘이었다.

이에 맞서 바다 수평선의 한 점으로 보이는 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만화의 시력(視力)이고 수평선 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기잡이 선단(船團)의 북진(北進)까지 알아맞추는 시력인지라 그 눈빛 앞에서 두 뱃사람은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탄 배는 관가(官家)의 사후선(伺候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바다에는 제대로 그런 배를 띄울 만한 나라형편이 아닌지... 저 배가 연경도 포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섯사람의 동패가 맡아서 청나라와 왜국의 수적(水



### 수미산

18

를 뜻합니다. 우리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일하는 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의 천룡8부(天龍八部)가 진노하고 바다의 용왕이 진노하여 당신들을 고기 밥으로 만들 것이오"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이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니 그런 선택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내볼 수도 없었다. 지상(至上)의 북쪽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의 무의지가 이 무욕도 수행의 의지에 일체의 다른 생각을 거절하지 부합되었다.

우녀가 인담에게 말하였다.

"두 사람의 범명(法名)을 지으시지요."

말의 억양은 공손했으나 명령이나 다

소리를 억눌러버리고 사람들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섬의 사람들은 인담을 비롯해서 우녀와 만화 남처사 합두 그리고 무진 파현등 7명으로 불어났다. 밤하늘인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살림은 첫째 말을 아끼거나 줄이는 일, 밥을 항상 부족하게 먹는 일, 숨을 고르게 하는 일등을 지침으로 삼았다.

오전 공부에 이어 점심 뒤에는 한동안 눈을 밝히고 쉬었다가 밥을 일구는 일이거나 부목(負木)의 일과 그밖의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빨랐다.

무진과 파현이 가만히 한 마디 나누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인(道人)이 되었지요?"

"글쎄 저 바다가 시킨 거여."

이 말을 들은 공보 남처사가 파현의 어깨를 탁 치며 빙그레 웃었다. 무슨 잡담을 하고 있는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섬의 꼭대기 쪽으로 가서 이번 태풍에 망가져버린 움막을 다시 손보아야 하였다. 그 뿐이 아니라 섬 중 허리쯤에 나무를 찍어서 또 한채의 암자를 짓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하였다.



그림 · 조향숙

## 비록 난파선일망정 배 한척이 무욕도의 것이 된뒤 두사람의 출가가 단행될 수 있었다

겨서 바닷물도 들어갈 수 없었던 눈도 가느다랗게 퍼졌다.

"이쪽은 뷔오"라고 만화가 안도의 숨을 내면서 말하였다.

인담이 맑은 사람에게서도 가슴팍의 움직임이 있었다. 차츰 손목에 제법 온기(溫氣)도 물드는 것이었다.

"이쪽도 목숨이 돌아온 것 같은데..."라고 인담이 좀 지쳐있는 얼굴에 희미한 기쁨을 내보였다.

인담은 돌도 없는 시의 벗이었던 이인로(李仁老)가 임촌(林椿)의 유작 「서하문집」을 여섯권으로 엮은 것이 뒷날 한권의 두꺼운 보금판으로 간행된 이래 세상에서 잊혀진 사실을 떠올렸다. 그 일은 태풍이 지나간 뒤의 무욕도의 사정과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닌 기이한 연상(連想)이었다.

하지만 임촌의 시 「병중유감(病中有感)」가운데 한 구절 「큰 고래가 솟아오르자니 물결이 말았구나(長鯨欲噴波湧)가 인담의 뇌리에 스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 한 구석에 밀쳐두고 있던 것이 문득 구름과 구름사이의 찰떡같은 버연(連綿)이 되었다.

그러나 인담으로서의 지금 임촌의 시를 생각한 처지가 아니었다. 만화가 숨을 쉰 채 버린 알대거리로 박치기라도 할 듯이 다가서며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賊)들이 경기만(京畿灣) 일대에서 노략질을 한 것을 이따금 밤의 항로(航路)를 틀타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대적도(德積島)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만화가 통명스럽게 한 마디 부조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자들도 수적이로군. 그것 참 신명나는 일이겠지. 아음(阿音)의 방심을 틀타 빼앗거나 훔쳐내는 것 말이오!"

그러나 인담은 차분하게 물었다.

"저 배가 비록 납은 것이고 또 이번에 난파된 것이라 한들 관(官)의 물건임에 틀림없으니 돌려주어야 후환(後患)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때 구조원 뱃사람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사래쳤다. "아닙니다. 사후선의 선적(船積)에서 떨어져나간 주인 없는 것입니다"

만화가 다짐을 받았다.

"그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여기는 수적의 포구가 아니라 수행하는 도량인줄 알아 할 것인즉"

우녀가 나섰다. 그것은 더이상 누덕 누덕한 말을 주고받을 까닭 따위를 생략 해버리자는 의도이기도 하였다.

"이제부터 두분은 마음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구제된 것은 당신들의 생(生)이 바뀌어진 것

를 없앴다.

그것이 명령이든 어떻게 청원이든 어떻게든.

임촌의 시 한구절이 떠올랐다. 그의 구절시(求乞詩)인 「홍천원에 부처(洪天院)의 그것이다.

"나는 지금 밥이 없고 부서진 버루를 먹는다(我今無飯食破瓠)에서 「무진」과 「파현」이 이름으로 도었다. 그 구절의 처참한 굶주림의 세계와는 달리 수행자에게 밥이 없음과 부서진 버루어발로 따들어맞기도 하는 것이었다.

"무진과 파현이면 되겠오"

두 사람은 새 이름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 사람은 최기(崔基)고 한 사람은 조가였으나 그 속성(俗性)을 이제부터는 어디다 물어두어야 하였다.

한 사람의 발보족이 무진이고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파현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난파선일망정 배 한척이 무욕도의 것이 된 뒤 두 사람의 출가(出家)가 단행될 수 있었다.

태풍 뒤이기도 하거나와 이 무욕도의 새로운 사정에 대한 관심인지 갈매기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날아와서 그 일대의 하늘을 꼭 채우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까지 건너온 것이 틀림없었다. 어린 갈매기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었다. 파현 그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한동안 무욕도와 그 일대의 바다에서 파

##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곡식밭이고 복밭이며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붓과 벼루 대신 지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란 모이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 옛 천축에서 집없는 수행자들도 그들의 흙벽집으로 된 명상(冥想)의 장소들을 만들었던 것인가.

인담은 식구가 늘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걱정스러워 하지만 우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땅을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구조되어 무욕도에 정착한 것을 매우 기뻐하기까지 하였다.

남처사가 "먹을 것을 뭘 일이 더 큰 일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녀는 그 공보의 걱정을 나무줄기에 돌은 버섯을 때어내는 것처럼 물리치는 것이었다.

"무슨 걱정이시오. 바다에서 산 장부에서... 그리고 이제 세속을 떠난 출가장부(出家)에서... 사람이 태풍 속에서 구조되었을 때는 그들이 먹을 것도 한끼 구조된 것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 부서진 버루나 먹는 사람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곡식밭이고 복밭이며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붓과 벼루 대신 지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복과 지혜 이것이면 게으름뱅이 잡들어 죽을지언정 굶어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녀의 든든한 신념이 바로 무욕도를 그 이전보다 더 뜻 있는 곳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인담은 감회가 깊었다. 그가 이 섬으로 어떤 불안을 안은 채 건너올때까지

는 오래동안 내버려진 무인도였다. 이 섬에서 아주 맑은 샘물이 있는 것도 그가 와서 다른 잡랄한 샘물로 실망한 뒤에 발견한 뜻밖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이 섬의 수행을 인담 혼자만의 세계로 열었던 것이다. 이 섬에서 그에게는 몇백년전에도 이 세상을 살다간 스승담인을 꿈 속에서 만났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어 그 스승의 무사승(無師僧)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옛날 수탄(壽善) 시절에는 사도승(私度僧)이 있었다. 스승없이 된 종이었다. 하지만 그런 종 가운데는 아주 덕과 계행(戒行)이 높은 사람도 있었으나 부역을 면제받기 위한 위도승(僞度僧)도 위함승(僞僧)도 없지 않았다.

어쨌거나 인담은 그의 신령스러운 꿈속에서 스승이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은 어떤 스승을 섬기고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신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과정

주간·야간 통신(비디오, 카세트)

- 취지**  
본 교육과정은 불교 어린이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고취, 그리고 조직적인 교육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교사의 재교육과 초임교사의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오니 변화하는 교사, 성장하는 어린이 범포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에 참여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제방 스님 및 제가 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교육불사에 전념하시길 기대합니다.
- 교육과정**

과 정	과 목
불교학과정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불교의식
교육학과정	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습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불교교육학과정	사찰 부처유아 지도법, 교사용, 불교의 아동관, 불교 교육방법론, 설법설계의 원리와 장치, 불교학교의 교육행정, 시청각교육원리 및 실제
지도실기	레크리에이션(게임송, 실내·외 게임, 포크 댄스, 캠프 진행, 찬불가 율동(제작원리))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오후행사, 기념행사 등)

- 교육기간 및 행사개요**  
가) 교육기간 1995년 3월 13일 ~ 6월 12일 (3개월)  
나) 교육시간 매주 월·수·금 **주간반**: 오후 2시 ~ 4시 **야간반**: 오후 7시 ~ 9시 **통신반**: 비디오 과정, 카세트 과정  
다) 인 원 각 반별 30명 (선착순 접수) 라) 수강료 월 6만원  
마) 교육장소 불교교육연구원 (조계사 중문, 시사일본어학원 옆)
- 입학자격**  
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나) 불교유치원 교사, 사찰 법사스님 및 어린이회 교사  
다) 자녀를 지혜로운 불자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
- 특전**  
가) 불교교육연구원 수료증 및 연구원증 발급 나) 본인 및 외부강사로 활동 보장  
다) 수료 후 사찰 어린이 법회 유급교사로 앞선

**불교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빌딩 3층 전화 725-7527~9

###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 x 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무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떨하여 상봉의 연을 지어지게 합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대입법주대제)이 한점씩 정성들여 그리고 최승선 포교기공 미련 및 불복조시기 운동진개를 위해 열기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구입문의 : (02) 841-7165  
•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1동 885-5

### 만·화·로·보·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사사기제이 지음 / 이미령 옮김

- 제1권 사리불·목련**  
지혜제일의 사리불과 신통제일의 목련. 진실한 법을 구하여 불제자가 되었지만 스승에 앞서 입적한 두 사람의 극적인 구도 이야기.
- 제2권 아난**  
부처님 곁에서 25년을 한결같이 시자로 지낸 아난과 반역자인 형 데바닷타. 불제자로서 대조적으로 생애를 살다간 두 형제의 마음의 갈등을 그려낸 이야기.
- 제3권 가섭**  
두타제일의 가섭. 일행토록 순수한 수행의 의결만을 고집하다가 부처님 입멸 후 교단의 중심 인물로서 불교 교단의 부흥을 기도, 후세에 불교경전을 전하기 위한 제1회 불전 결집을 단행한 인물.
- 제4권 라후라·아나울·우팔리**  
부처님 출가 전의 외아들 라후라. 앓을 못 보지만 천안(天眼)을 얻은 아나울. 인도의 하층계급 출신으로서 서민의 대표인 우팔리. 세 사람의 인연과 수행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
- 제5권 부루나·수보리·가전연**  
거듭되는 난관을 헤치고 끝끝내 이루어낸 사위국의 불법 유포. 교단의 중심이 되어 활약한 젊은 청년부사들의 활력 넘치는 이야기.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 5권** 우리출판사  
각 권 4,000원 TEL. 313-5047 FAX. 393-9696